

미래 핵심 성장동력의 허브로 자리매김

전북대, 207억 규모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선정 나노탄소소재 고성능 에너지 저장장치 적용 연구 수행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시행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시행한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 연구센터(RILRC)(사업단장 이종희 교수)'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을 4대 권역(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광주·전북·전남·제주/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지정된 혁신 성장분야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

호남과 제주권에서 모두 11개 사업

이 신청돼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결과 전북대가 유치를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과기정통부로부터 7년 간 207억5천만 원을 지원 받아 '나노탄소 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 사업에는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탄소융합기술원(KCTECH)이 참여한다.

이 분야는 전북의 주력 산업인 탄소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혁신 연구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신소재를 개발해

에너지 저장장치에 적용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성과를 내고 있는 전북대가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전북지역에서 연구되었던 나노탄소소재 기술을 미래사회에 대비한 고효율 고성능 에너지 저장/변환 장치에 적용하는 연구가 수행된다. 이 연구가 수행되면 그간 전북이 전락산업으로 육성했던 탄소산업이 새로운 에너지 산업과 접목되어 큰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핵심 에너지 소재 산업으로 전북도의 신산업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에는 (주)휴비스와 (주)클린앤사이언스를 비롯한 7개 업체가 원천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참여하고 있

으며, 이러한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한 미래 핵심 소재 원천기술 확보로 향후 전라북도의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 상반기에만 118억 원의 외부 연구비 수주가 급증하며 탁월한 대학의 연구 역량을 입증한 바 있는 전북대가 또 하나의 대형 정부 사업 유치를 통해 연구 중심대학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선정은 '일산대학, 따뜻한 동행'의 슬로건 아래 모든 구성원이 마음을 모아 대학의 내실을 다져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전북대가 지역 핵심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탄소나노에너지 소재 분야 연구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중국 연변대학 70주년 축하

전북대학교 김선희 부총장 일행이 20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재매대학인 연변대학 개교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연변대학과 1999년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부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농업생명과학대학을 중심으로 식품공학 분야의 한·중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변대학은 조선족 교육과 동북아 지역 역사, 인문학 연구, 백두산 자원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대학으로, 중국 정부가 21세기 중국 대학들의 세계화를 목표로 전국에서 100대 대학만을 지정한 '211공정'에도 선정돼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지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육의 국제화와 조선족 인재양성, 남북 교육 및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일 열린 전야제는 연변대학의 교

직원, 학생, 동문들이 꾸민 다채로운 문화 예술 행사로 구성되어 연변지역 조선족들이 우리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표현됐다. 이어 21일 본 행사는 전북대를 비롯해 서울대, 부산대, 일본 메이지대학, 히로사키대학 등 해외 재매대학 내빈들과 연변자치주 주요인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경축행사와 오후 동북아대학 총장 원탁회의로 구성됐다.

경축행사는 연변대학 천해란 당서기의 사회와 김용 총장의 인사말, 각계각층의 축사, 연변대학 교가 합창 등으로 진행됐고, 동북아대학 총장 원탁회의는 '동북아대학들의 교류협력 심화와 공동발전 추진'이라는 주제 하에 향후 동북아 지역 대학들의 인재양성과 교류협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교류 추진의 한계와 극복 등에 대한 한중일 각 대학 총장들의 진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도내 농업계고 21개팀, 전국 FFK전진대회 참가

미래 농생명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농업 인재들의 도전 한마당이 펼쳐진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4~26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8년차 전국 FFK전진대회에 도내 농업계고 학생 21개팀 111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고 밝혔다.

올해로 48회째를 맞는 전국 FFK전진대회는 농업계고 학생들의 진로를 모색하고 역량을 제고해 한국의 농업과 중등 농업교육에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함께 꿈꾸는 우리 농업, 함께 만드는 미래농업'을 주제로 광주자연과학고와 광주광역시교육연구원에서 개최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고 FFK

연합회, 한국농업교육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시·도를 대표한 전국 농업계고 학생 854명과 지도교사 및 관계자 17,341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공경진 분야(6종목)에 가장 많은 532팀이 참가하며, 과제이수발표 분야(7종목) 111팀, 실무능력경진 분야(7종목) 129팀, FFK골든벨 분야 105팀이 참가한다. 특히 글로벌 리더십 분야에서 학생들이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경진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북 대표로는 전공경진 5개 종목 55명, 과제이수발표 6개 종목 11명, 실무능력경진 8개 종목 22명, 축제분야 2개 종목 23명 등 총 111명이 참가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심리학과가 학과 창립 40주년을 맞아 20일 오후 6시 30분 진수당 기인홀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재학생과 교수, 동문이 모여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길”

전북대 심리학과,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성료

전북대학교 심리학과가 학과 창립 40주년을 맞아 20일 오후 6시 30분 진수당 기인홀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재학생과 교수, 동문이 모여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과 안국찬 사회대 학장, 조현섭 한국심리학회장, 조현중 심리학과 동문회장(루이엘모자박물관), 심리학과 전·현직 교수, 재학생 등이 참석해 4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사회자 이하운(04학번 KNN아나운서)의 개회 인사말로 시작된 행사에

서는 심리학과 동문회 이종철 총무가 경과보고를 통해 40년 발전취를 되짚었고, 심리학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홍대식·이상빈·김정희·손정락 명예교수에서 감사장이 전달됐다. 또한 후학들을 위한 학과 교수들의 발전기금 기탁과 함께 장학금 전달식도 이어져 배움과 감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조현섭 동문이 2,400만 원, 강해자 교수(학과장)와 이영순 교수가 각각 1천만 원씩을 기탁했다.

또한 손정락 명예교수와 백강현·오성주·임사라 동문 등이 학과 장

학기금으로 기탁한 장학금이 17명의 학생에게 전달됐다.

이와 함께 학부 학생회가 준비한 오픈라디오와 심리학과 퀴즈쇼 및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이어져 심리학과 동문들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강해자 심리학과장은 “이 자리는 심리학과 창립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후배 간 화합과 학과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모교와 학과가 더욱 발전하고,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조현중 동문회장(루이엘모자박물관)은 “우리 심리학과가 40년의

유서 깊은 학과가 된 것은 교수님들과 학생, 그리고 동문 여러분이 그간 학과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다”며 “동문들이 앞으로 힘을 모아 심리학과 발전과 후배들에게 좋은 학업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도 축사를 통해 “심리학과 설립 40주년이 되는 해 전대 심리학과 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심리학과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심리적 돌봄 능력 키우는 '엄마심리학' 호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학부모교육 '엄마심리학'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주효자동 개골개골작은도서관 교육실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엄마심리학' 첫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상관계상담심리연구소 권애경 소장이 강사로 나서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심리를 치유하고, 엄마의 정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차시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부모 자신의 내적 세계를 탐구해 심리적 돌봄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초기심리구조

형성의 유래, 삼자 관계에서 나의 위치, 마음 밑에 놓기 마음 빼앗기, 침범과 잔소리, 정신적 인신처 등 정서 발달 외곽의 치유와 회복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왕민자 학부모지원전문가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한 아이로 성장한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상처치유 과정과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엄마, 건강한 부모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19 Heungbu Festival

제 27회 흥부제

2019.10.11(금) > 10.13(일)

사랑의 광장 일원

개막식 및 축하공연

10.11(금) 18:30

마마무·워너원(하성운)·정수라
변진섭·미스트롯(숙행·김소유)
박진도·임채무·박남정 등

흥부樂 늘부樂 10.12(토) 19:00
불꽃놀이 10.12(토) 21:00

주최·주관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흥부(興富)가 돌아왔다”